

## 일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

How can I find satisfaction in my work

신앙 성장 시리즈 27

## 일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

How can I find satisfaction in my work

© RBC Ministries

인 쇄 : 2006년 11월 20일

발 행 : 2006년 11월 26일

감 수 : 김상복

번 역 : 강희숙

편 집 : 신영균

발 행 인 : 김상복

발 행 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031)780-9565~8

인 쇄 처 : 소망사

(02)392-4232

# 차례

발간사/4

서문/6

1.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 7
2. 노동의 고통 ..... 12
3. 일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 ..... 18
  - 3.1. 고용주가 누구인지를 알라 / 20
  - 3.2. 일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 32
  - 3.3. 일을 지나치게 중시하지 말라 / 41
  - 3.4. 적당한 직업을 찾아보라 / 53
4. 일하기를 멈추라!..... 58

용어 정리/62

표지그림: 김용식의 “영원과 한계(Eternity and Limitation)”

## 발간사

### 일은 저주인가, 축복인가?



누구나 하루에 최소한도 8-10시간은 정기적으로 일을 한다.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일을 함으로써 각자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처음 가졌을 때는 누구나 희망과 의욕이 넘친다. 그러나 어느 새 직장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나는 곳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분야를 막론하고 직장에서는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일이 정례화된 의식이 되어 버린다. 직장이 일종의 단순 노동 일터로 변한다. 인간이 마치 큰 기계의 부속품인 듯 작은 분야에서 같은 일을 반복한다. 점점 재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일은 해야 한다. 그만 두고 싶어도 그만 둘 수 없다. 정기적으로 오는 월급 봉투를 위해 한 달을 참고 일을 감수해야 한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직장생활은 계속 되고 그 단조로움과 지

루함을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직장을 바꿔 본다. 환경이 달라지면 무엇인가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해보지만 결국은 마찬가지이다. 의욕도 창의력도 약화되고 일은 단지 생존의 수단으로 전략해 버린다. 인내하며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 은퇴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 때에는 연금을 타며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으리라는 30-40년 후 그 날을 바라보며 꼭 참고 일을 한다. 그러는 중 어떤 이들에게는 어느 날 몸에 병이 생긴다. 암이라고 한다. 은퇴도 못하고 인생의 막을 내리기도 한다. 억울하다. 일은 정말로 저주인가? 에덴동산의 타락이 없었더라면 이 고달픈 지상의 삶이 없었을 터인데 인간은 일의 저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이 고달프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인가? 일에 대한 보다 나은 하나님의 대답이 있는가? 물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답을 찾을 것이고 내일 아침 직장을 향해 집을 나갈 때 새로운 힘이 나타날 것이다.

2006년 11월

한국오늘의양식사

발행인 김 상 복 목사

## 서문

### 일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

전망이 없어 보이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과도하게 힘들여 일한 것 같은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지요? 나는 일에 대해 너무 몰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의 양식” 편집자 쿨트 디 한은 이 소책자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읽어나가다 보면 성경이 우리의 일과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틴 알 디 한 2세



## 1.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당신의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현재 상황을 평가해보십시오. 지난 6개월에서 1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단, 최근에 특별히 좋았거나 나빴던 날은 제외하십시오. 그러면서 왜 만족했는지, 아니면 왜 만족하지 못했는지 주의 깊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주 만족, + 대체로 만족, + 대체로 불만족, - 아주 불만족

| 직업 만족도 점검표 | ..... +                        | + -                      | - +                      | -                        |
|------------|--------------------------------|--------------------------|--------------------------|--------------------------|
| • 근무시간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급여/보험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직장동료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근무지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업무능력 .....
- 상사와의 관계 .....
- 특수기술사용 .....
- 성취도 .....
- 승진기회 .....
- 인정/존경 .....
- 흥미의 정도 .....
- 정신적 중압감 .....
- 도전의식 .....
- 기술향상도 .....
- 근무환경 .....
- 책임감 .....
- 직업안정도 .....
- 기타 .....

당신의 답변을 검토해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습니까? 좀 더 만족하려면 무엇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현실적인 보수를 받고 있습니까? 적당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높은 보수를 기대합

니까?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직업적으로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그 누구도 완벽한 직업을 갖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최상의 환경이 주어져도 우리는 불완전한 동료들과 함께, 또는 불완전한 시스템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 자신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위의 점검표에서 “불만족” 난에 표시를 많이 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 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 도전의식 부족
- 짜증나게 하는 상사나 동료
- 업무에 대한 중압감
- 저임금
- 열악한 작업환경
- 형편없는 장비
- 자긍심 결여
- 업무 절차간의 상충

- 성취감 부족
- 고용 불안정
- 길고 긴 근무 시간
- 양심에 거리끼는 직장 방침
- 개인적 또는 가정 내 갈등
- 신체적 탈진
- 감정적 탈진
- 의사소통 부족
- 잘못된 노동조합 활동
- 차별
- 희롱
- 편애



### 일이란 우리가 참고 견뎌야만 하는 짐일까요?

이 목록을 읽으면서 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쉽게 떠오르는 문제들로 인해 직장이 불만의 온상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은 뼈아플 정도로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이란 우리가 참고 견

더야만 하는 짐일까요? (전도서 2:22-23).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주님을 잘 믿으면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주의 깊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 2. 노동의 고통

어떤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잭이라는 전도유망한 청년을 고용하여 새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 직책은 최근에 출시된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충성스럽고 부지런하며 회사의 방침을 잘 따르는 믿을 만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잭에게는 능력이 있었던바, 회사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의 상사는 잭만큼이나 유능한 도온이라는 여직원을 지목하여 잭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기초부터 쌓아올려야 하는 새로운 벤처 사업에서 늘 그렇듯이, 그 두 사람도 행정적 업무에서부터 사소한 세부적인

일들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다양하고 폭 넓은 일들을 처리해나갔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들은 특별 표시가 된 봉투는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봉투는 상사가 파일 캐비닛의 맨 위 쪽에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온이 혼자 일하고 있는데 경쟁사의 직원이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그는 특별 표시가 된 봉투를 발견하고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도온은 그것은 열어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경쟁사 직원은 의심이 가득한 말투로, 그 상사가 잭과 도온이 회사에 대해 너무 많이 알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도온은 정말로 상사가 핵심정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봉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동료인 잭이 왔을 때 그녀는 잭에게도 그 내용을 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날 늦은 시각에 사장이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

들의 행동을 눈치 채 것 같았습니다. 사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을 강등시킬 것이고, 감봉에 처할 것이고, 악의적 경쟁과 “두통”이 일상인 부서로 전보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 의 결과입니다. 타락은 기쁨 가운데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존 스코트)**

위의 이야기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던 중 일어난 일과 아주 비슷합니다. (확실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는 여러 면에서 피고용인과 비슷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고용행태와는 달리, 그들에게는 완벽한 직무, 완벽한 상사, 완벽한 동료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최초의 두 노동자는 피고용자 지침, 즉 창세기 2장 17절에 나타난 단 하나의 금지사항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비극적 결과를 일으

켰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남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적대적인 세상에서 노동을 해야만 하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창세기 3:17-19).

이것은 인류의 조상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기쁨이었던 일이 이제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농부들이 만나게 되는 단순한 문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모든 일에는 각각 고유한 잡초들이 생겨나 그 일을 방해하고 고통을 일으켜 온 것입니다.



일 그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낙원에서의 삶에 대비한  
주님의 청사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감정과는 달리, 일은 그 자체로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합당하게 보는 방법을 알게 되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완벽한 삶이란 일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란 낙원에서 삶의 예비한 주님의 청사진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일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직무 설명서”를 말합니다. 그 설명서는 우리가 누구의 감독 하에 있으며,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며,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담긴 깊은 뜻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상사들, 피고용인들, 동료들, 고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방법도 알려줍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이란 즐거움이 전혀 없는 고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천국에 우리들의 집을 예비하기 위함만

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얻는 참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 3. 일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서 누군가가 일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종일 수영장 주변을 어슬렁대며 레몬주스를 훌쩍거리며 관목들을 가지치기하는 정원사를 지켜보며 지낼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근직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중국 속담에 “가만히 서있는 것이 가장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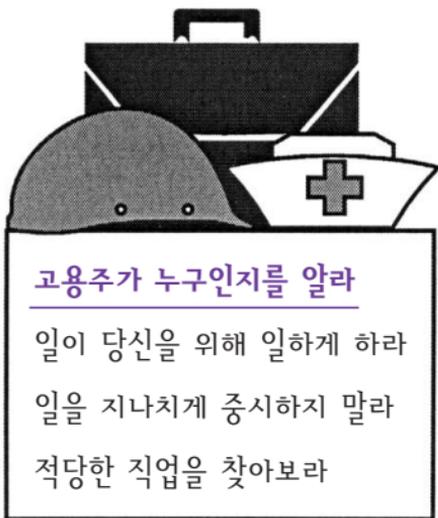
우리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개인적 가치는 생활 속에서의 어떤 목적에 대한 성취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과 만족스런 생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이 항상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감정적으로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당신이 공장 노동자든, 임원이든, 전문인이든, 일과 자녀 양육 모두를 꼭예하듯 해야 하는 홀아비나 과부든, 다른 일에 종사하든 당신이 감내해야 하는 일은 대부분 독특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여러 면에서는 아주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 소책자에서는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춰 만족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원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3.1. 고용주가 누구인지를 알라



고등학교 시절 나는 플로리다주 트레저 아일랜드에서 조그만 모텔 세 곳을 운영하는 사람 밑에서 일했습니다. 낙원에서 일한 것처럼 들립니까? 전혀 아닙니다. 나는 잔디를 깎았고, 관목 가지치기도 했고 기

역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잡초를 뽑았습니다. 시간제 근무였고 임금도 아주 낮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플로리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서 자갈로 덮인 주차장에서 직접계 질긴 생명력을 가진 잡초 뽑는 경험은 이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지 않고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안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을 그만 둔 것입니다.

그런데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내가 올바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도 내 생각이 옳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나는 다시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고 내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몇 주 동안 더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그만 두겠다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떠오릅니다. 단순반복 작업이었고, 덤고 땀이 흘렀고, 후크 선장 같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상사는 내 일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없어보였고, 나는 내 노동에 상응하는 물질적, 인간적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외 용돈을 마련하기 위한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이후로 내가 일을 하는 동기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내 생각이 항상 최선은 아니었기에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한 번 이상 있었습니다.



”당신이 종일 하고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연계시키지 못하면 당신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그 셔먼, 윌리엄 헨드릭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일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상사는 나에게 대해 비판적인 것 같고, 동료들은 무례하고, 가족들은 당신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아주지 않고, 원하는 승진도 안 되고, 일이 점점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일에서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기분이 안 드는데 일에 전력투구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게, 사무실, 공장, 건설 현장, 또는 다른 어떤 곳에

서든 우리를 감독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는 정말 누구를 위해 일을 합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분은 상사들의 상사이며, 감독자들의 감독자이며, 십장들의 십장이고, 경영자들의 경영자입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의 태도는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시는 고용주이십니다. 최저 임금으로 최대한의 일을 시키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분은 당신과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부문에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일을 보살피 주시는, 그것도 세밀하게 보살피주시는 이유는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내적 성품과 그분에 대한 헌신의 정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창 1:26-27),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

님처럼 우리도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 5:17)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손과 머리를 사용하여 지구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조되었습니다. (창 1:28; 2:15-20). 이 최초의 두 피고용자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신실하게 보살피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매일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내 태도를 바꿔 줍니까?**

만약 우리가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도구로 사용해서 뜻을 이루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환경의 희생자로, 고용주의 불모로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줄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우리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최선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우리 자신에게 하듯 다른 사람들이 잘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일터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며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주께 하듯” 하는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의 노

력을 다해 섬길 가치가 있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용주, 우리의 가족, 가난한 사람, 사회가 그런 섬김을 받을 대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로새서 3:23)

### (1) 우리의 고용주

여러분들 누구나 잘 알다시피 고용주를 섬기기란 실천하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Executive’s Digest’에 실린 이야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후원하는 응급처치 강좌의 강사가 어느 노동자에게 “당신이 광견병에 걸린 것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내 상사를 물어버리겠습니다.” 라고 근로자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이 유머러스한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상사를 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6:5-8에서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주인을 존경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듯 주인을 섬기라고 한 것 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선택한 직장에서 일하는 피고용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바울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 했습니다 (5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냐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니라.” (8절) 라는 말로 대신하며 바울은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임금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골 3:22-24).

## (2) 우리의 가족

성경에서는 의식주 그리고 더 이상의 것들로 부양해야 하는 가족을 거느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가족의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이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배우자, 자녀, 가솔들, 노부모를 말합니다. 고의든 부주의든 그들을 부양하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 (3) 가난한 사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훈계하는 말을 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붙잡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상사를 섬기거나 가족을 부양할 때 주께 하듯 하는 우리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 때도 주님께 드리듯 하는 우리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일을 하는 목적은 부나 재산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

잠언서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21:25-26).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대별이 됩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을 위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의인은 가난한자를 찾아 베풀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시 37:25-26; 행 20:35; 갈 2:10; 요1 3:17-18 참조).

#### (4) 사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과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에 부가하여 우리의 상사나 동료의 영적 풍요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12절에서 저자인 바울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불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믿음으로 인해 실제 당신의 일상생활이 무엇인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은 일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딤후 2:10). 정직하게 일한 하루 일과가 우리의 신앙고백을 대신하고 복음의 진리를 역설합니다.

구약성경의 창세기에는 열심히 일하고 온전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 39-50). 형들은 어린 그를 노예로 팔았지만 나중에 그는 바로를 섬기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주인 때문에 수치를 당한 것 외에는 그가 겪은 일을 짐작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겼고 믿음에 관한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도 그것에 주목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 다니엘은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망하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에게 봉사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에 헌신했고 이방 왕국 바빌론에서의 그는 하나님을 빛내며 살았습니다.

##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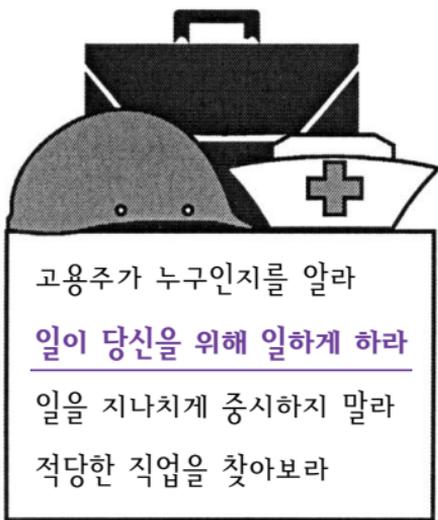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일에 만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으면 하고 원하시는 것이 더 있습니다. 이 책자의 다음 절은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써 주신 직무설명서에 더욱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 영역을 확대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그 목적이 더 뚜렷해지고, 더 의미 있고, 더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당신이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당신이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것 보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는 삶이 왜 더 만족스러운 것일까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떻게 돈을 쓰고 있습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은 당신이 기독교인 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생활이 모범이 되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까?



### 3.2. 일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당신의 일이 최근에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당신의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무엇을 얻었습니까? 좌절, 책임감, 압박감들이 겹쳐서 비참함과 절망을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어

려움들을 활용하여 더 훌륭한 일꾼이자 더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 볼 때 성장과

결실의 증거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삶의 과정에서 일이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혹은 방해가 되었습니까? 일과 관계된 태도와 행동에서 발전이 보입니까?

우리들 중 대부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일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는 만큼 우리의 삶을 구획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일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나 집에서 혹은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할 때 모든 면에서 간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물건을 팔며 고객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상사에게 어떻게 책임을 다하는지,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일하는지, 회사의 자산을 어떻게 다루는지, 짜증스러운 일상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다 관심을 갖고 봅니다. 우리가 선택한 직업 경로도 살피지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지도 눈 여겨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더 유능한 일꾼이 되는 것을 돕는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그리스도의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고 썼습니다. 원래는 이 말씀은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디모데에게 한 것이지만 이 원칙은 모든 형태의 일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일이 무엇이건 우리는 탁월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왜 일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대단히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이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소의 휴식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한 주일의 근무를 시작하는 첫 날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란 퇴근 카드를 찍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할 때까지 참아야 하는 필요악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란 퇴근 카드를 찍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할 때까지 참아야 하는 필요악이라고 봅니다.

나는 저녁에 사무실 빌딩을 청소하는 일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진공 청소하고, 걸레질 하고, 먼지를 털고, 개수대와 변기를 얼룩 없이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수도 없이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것은 단지 직업일 뿐이었고 게다가 전혀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 정말 만족스럽게 느껴졌던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옛날 일을 다시 하고 싶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나 자신의 태도입니다.

### **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증상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 게으름 (최소한의 일만 하거나 시간을 낭비)
- 수동적인 태도 (확신 있게 처신하거나 옳은 편에 서지 않는 태도)
- 훔치기 (받아갈 것은 다 받아가는 것)
- 투덜대기 (불만족)

## 어떻게 하면 일을 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일이 주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신약성경의 짧은 편지에서 말한 시험이란 직업과 관계된 것까지 포함된 모든 종류의 시험들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3-4)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야고보가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5절).

사도 바울도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지닌 가치에 대해 아주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라.”라고 말했습니다(롬 5:3-4). 그러므로 일에서 일어난 문제는 바른 일을 할 기회이자 이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경건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둘째, 우리가 받아 마땅하다고 느끼는 존경과 임금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행한 신실한 일에 대해 주님이 보상하실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엡 6:5-8; 골 3:23-24).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골로새서 4:1

셋째, 고용주들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명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벧전 2:18-19). 베드로는 이어 21절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본보기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넷째,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런 교

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17-18, 21).

### 그런데 내 직장이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출근할 때마다 고문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에게 동정이 갑니다. 어떤 직업은 일 자체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열악한 작업 환경에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1) 구직시장이 꽉 막혀 있으면 주어진 상황을 최선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 가능하다면 다른 직장을 찾으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을 봅시다. 바울은 주인과 노예의 세계였던 1세기 때 말했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전 7:21-23). 바울은 노예제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노예들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거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에서도 불공평, 스트레스, 반목에 잘 대처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한 문제는 노예제도나 자유가 아니라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성경은 우리의 직속상사나 이사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근무 상황이 아무리 좋든 나쁘든 불공평, 스트레스, 개인적 반목에 잘 대처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딱 직장을 찾아보십시오. 물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로 가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해결한다면 또 다른

문제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직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직하기 전에 당신이 떠나야 할 모든 이유를 다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가족, 교회, 사회생활, 당신 개인의 온전성, 그리고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직을 하기 전에 당신의 결정이 당신의 일 말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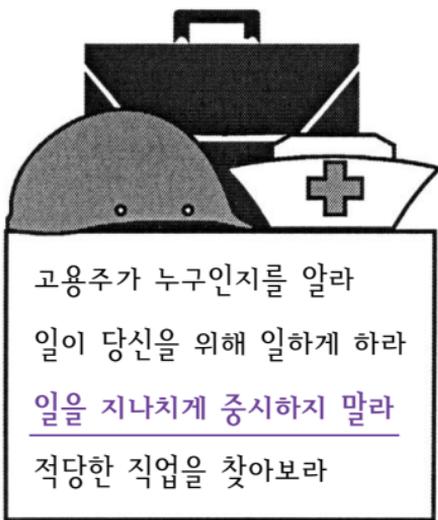
어떤 이유로든 해고를 당했거나 혹은 “노예”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이 책자의 “적당한 직업을 찾아보라”절(53쪽)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풀어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에서 고쳐야 할 부분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료들이나 경영자와 대립하여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 3.3. 일을 지나치게 중시하지 말라



당신은 일생 동안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평균 8시간 일한다면 하루의 삼분의 일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잠잔다고 하면 깨어있는 시간은 16시간이니 깨어 있는 시간의

반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출퇴근 시간을 계산에 넣으면 매일 1시간 정도를 더 직장에서 보내는 셈입니다. 준비하는 시간과 긴장을 푸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다 합하면 인생의 큰 부분을 직장이 차지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계

다가 근무 중이 아닌데도 일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업 주부나 자녀를 키우는 홀아비, 과부의 경우는 근무 시간이 하루 종일입니다.

이렇게 다 더해보니 우리들 중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일은 곧 삶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시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쁜가요?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필요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일한 총 시간이 일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에 투입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이유와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 **일이 우리의 지배를 벗어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일을 성취감의 1차적 근원으로 보고 인생의 다른 모든 관심사들을 밀어내면 - 개인 생활, 가족, 친구, 교회,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밀어내면 - 일이 우리의 신이 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그런 유형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았

습니다. 그는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개인적인 성취감을 찾는 것은 신기루를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일단 목표에 도달하면 기대했던 만족감은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인생에는 더 많은 월급, 더 높은 직책, 훌륭한 은퇴설계를 움켜쥐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썼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 3:9-13)

위의 구절 속에 있는 핵심적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11절) 우리는 삶의 매순간 순간마다 수렁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좌절로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신뢰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에게는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올 것은 온다”는 투의 염세적이고 수동적인 삶의 태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완벽과는 거리가 먼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역사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삶의 소소한 것에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 **우리가 남들을 속이지만 우리 자신은 못 속이는가요?**

당신이 나와 비슷하다면 당신이 일을 찾고 있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40% 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좋아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석가는 미국인들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고 덜 물질적이라는 증거라고 그 결과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여론조사가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올바른 정신의 사람이라면 결코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도 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들이 무엇을 말해주던가요? 우리는 모두 다소 보잘 것 없는 신(일)을 위해서 살면서 일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요?

당신 자신의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언제 행복합니까?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 내가 일 중독자인가요?

알코올 중독자처럼 일 중독자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쉽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마련입니다. 일 중독자는 자신이 일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이 일을 그만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일에 휘둘리고 있으며,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권한을 얻고, 상사와 동료의 칭송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며 높아짐으로써 동기를 부여 받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잠 23:4). 억제할 수 없으면 우리는 속을 태웁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은 짧고 부요함은 덧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어떤 하찮은 성공의 개념보다 더 중요하다고 일깨워줍니다.

## 건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부여한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일은 삶의 많은 부분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지도, 게을리 하지도 마십시오. 일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 일생의 목표를 성취시키는 길을 열어줍니다. (마태복음 22:37-40)



인생은 짧고 부요함은 덧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어떤 하찮은 성공의 개념보다 더 중요하다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 합니까?

일에 너무 푹푹 묶여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항상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 할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을 실제로 축복하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신 6:10-12; 잠 10:4-5, 26).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마실지 근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에 모든 것을 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일을 거꾸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자,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자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것을 먼저 추구합니다. 식사시간에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기는 하지만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공로를 돌립니다.

이것은 편안히 등을 받치고 앉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릎 위에 떨어뜨려 주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깨우쳤습니다. 바울은 일에 대한 그의 자세를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살후 3:7-10)

### 삶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말거나 너무 소홀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있는 인생의 다른 요소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라는 책에서 덕 셔먼과 윌리엄 헨드릭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삶의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를 철인5종 경기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이 경기를 잘 하기 위해서 선수는 달리기, 수영, 승마, 사격, 펜싱을 다 잘 해야 합니다. 다른 네 가지 종목을 포기하고 한 종목에 몰두하거나 어느 한 종목이라도 소홀히 하면 선수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삶의 다섯 부분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개인 생활
- 가족
- 교회 생활
- 일
- 사회 생활

어떻게 하면 이 다섯 부분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셔먼과 헨드릭은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일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① 다섯 부분에 걸쳐서 기도의 삶을 조직하라 (207 쪽)

이렇게 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지니면서 이 다섯 부분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에 할애할 적절한 시간을 결정하라 (207 쪽)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여 우리의 모든 기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③ 귀가 시간을 정하라 (208 쪽)

일은 우리가 할당한 시간을 다 쓰게끔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④ 근무시간 중 일정을 짜듯이 가족 행사, 교회 봉사, 지역 사회 활동, 개인 생활 등 일을 하지 않는 시간 중의 일정을 짜라. (209쪽)

⑤ 감성 에너지 사용을 조심하라 (209-210 쪽)

일이 심리적 노예제도화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⑥ 안식하라 (210-211 쪽)

주 중에 하루 혹은 하루 중 특정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 휴식을 취하거나, 숙고하거나, 앞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⑦ 직업 외의 일에 관심을 키우고 참여하라 (211 쪽)

⑧ 행하지 않으며 구경만 하지 말라. (212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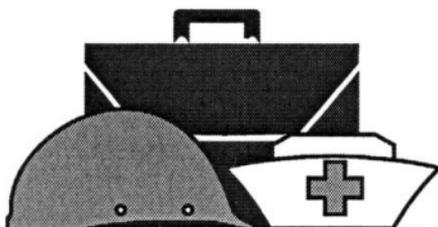
여가 생활에서 피해야 할 진짜 위험은 단지 관객으로만 남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위에서 언급한 삶의 다섯 부분에 모두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자신을 일 중독자라고 생각합니까, 삶에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삶을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까?



### 3.4. 적당한 직업을 찾아보라



고용주가 누구인지를 알라  
일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일을 지나치게 중시하지 말라

적당한 직업을 찾아보라

맥스는 큰 변화의 바람을 인식하였습니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생산 둔화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고 경영진에서는 지출을 삭감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맥스는 회사의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그의 직무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일한 점이 참작되어 회사는 그를 다른 직책으로 전보시키려 했는데 맥스는 새 직무에 그다지 흥미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맥스는 이 기회에 자신의 선택과 그에 따른 미래를 평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른 회사에 그의 흥미와 그가 받은 훈련에 맞아 떨어지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일자리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서 면접을 하러 갔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일을 제안했고 그는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맥스처럼 당신도 경력을 선택하거나 일 할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직업 선택을 할 때 최고의 일이 소위 “정규직 기독교인의 일”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목회자, 선교사 혹은 기독교 사역이라고 해서 의류 판매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트럭 운전 같은 세속적인 일보다 더 신성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고 필요하다면 모든 종류의 일은 하나님 보기에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술을 사용하여 최선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할지 새로운 일이나 진로를 모색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는 쉽지 않습니다만 걱정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RBC에서 발행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신앙성장시리즈 12호’ 라는 책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다섯 단계를 가르쳐 줍니다. 다섯 단계의 첫 글자를 따오면 GUIDE (안내자)가 됩니다.

**Go to the Lord.**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Understand His principles.** (하나님의 원칙을 이해하라)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성경적인 사실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Investigate your options.** (당신이 선택할 만한 것들을 연구하라)

당신의 선택들은 무엇 무엇인지 그 선택들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며 부정적인 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선택들의 결

과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십시오. 직업과 관계되는 당신의 취미와 재능과 약점은 선택하려는 직업과 적합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일 할 수 있습니까?

**Discuss it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라)

다양한 직업인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의논해보십시오.

**Express your freedom.** (당신의 자유를 표현하라)

주님을 의지하며 광범위하게 분석을 했다면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당신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고 존중했다면 하나님도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과 당신에게 유용한 선택을 분석하는 시작점으로 다음의 항목들을 사용하십시오.

### 인적 사항

- 나이
- 학력
- 직무 경험 (좋은 것, 나쁜 것)
- 현재의 직위

- 기술
- 관심사
- 재정적 여건

## 직업 선택 기준

- 성경적인 원칙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
- 다른 사람들의 의견 (가족, 친구, 동료)
-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능력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직업
- 사람들에게 대해 모범적이고 가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직업
- 임금과 복리후생
- 근무 조건



#### 4. 일하기를 멈추라!

당신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에 고용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작업을 배당 받을 때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 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쁜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위해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일에 자격 미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소산물에 원천적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늘 판단에 오류를 범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당신의 삶이 끝나서 완벽함을 요구하는 분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최종 검열

에 통과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 기준인 율법을 어겼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또 성경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롬 6:23). 우리가 인생의 종점에서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급여수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하다는 하나님의 판결문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로마서 6:23)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

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 값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로마서 4장 4-5절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값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경이롭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이라고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당신에게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급여수표를 받을 자격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얻어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당신이 모든 실패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

의 성공으로 함께 신뢰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노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공하신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노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 용어 정리

**타락:**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모든 피조물이 죄의 부정적인 결과로 타락하였다. 그 결과 중 하나로 일이 어려워지고 좌절로 가득하게 되었다.

**정규직 기독교인의 일:** 일반적으로 교회나 선교협회, 교회관련기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 일한다.

**온전성:** 인간의 일관된 성격. 일에 있어서 온전성을 가진 사람이란 우리가 위임 받은 일을 성취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안식일 (휴식):** 구약성경의 율법에서는 매주 하루의 쉬는 날을 말한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우리에게 휴식시간이 필요하다. 단순히 “우리의 건전지 재충전” 뿐만 아

나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의 삶에 적절한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원:** 하나님이 개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말하는데 그 개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받을 별을 가져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만족:** 우리의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오는 성취감.

**일:** 어떤 것을 이루려는 노력: 일이나 사업: 직업

**일 중독자:** 일에 과도한 시간과 주의력을 쏟아 바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일에만 집중하므로 가족, 친구, 교회,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손상을 초래함

## 「오늘의 양식」 「신앙 성장 시리즈」 구독청원서 및 선교헌금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원 및 헌금자 |                          | 청원자 번호 |                | 전 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 명      | 직 분                      |        |                | 접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        |                | 전 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 · P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편번호     | 부 수                      | 월      | 부              | 구독기간: | 년 월~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①신규 ②주소변경 ③부수변경 ④재신청 ⑤취소 |        | 현금입금은행 : ( )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리즈 번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 신청 부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늘의 양식」과 「신앙 성장 시리즈」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제작되는 책자입니다.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오늘의 양식 제작비 권당 500원, 신앙 성장 시리즈 권당 600원을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